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 열병식 성대히 진행



1 면 에서 계속

관중들은 우리 당과 혁명투력의 창건자, 건설자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당과 혁명을

령도하시여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열병대오를 우렁찬 박수를 보내었다.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터져 울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석단로대에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 열병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기어이 성취 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 열병식에서 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영호동지의 연설

조선인민군 특혜공군장병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로동적위군과 붉은청년군위대 대원들! 평양시민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넘쳐 선군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띠고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엄에 따라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조국의 안전과 강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로동적위군, 붉은청년군위대 대원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65성상의 자랑스런 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이 시각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있습니다.

당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심으로써 사회주의진리당건설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반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아버지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로선과 군사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총대를 확고히 틀어쥔 선군혁명령의 강력한 항도적력량으로 영광롭게 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적당군으로, 우리 시의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일당백혁명당군으로 역사적 자라날 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당과 군대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굳게 결합시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향한 총공격전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영원한 생명선으로 간직하고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연회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을 경축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차리었다. 연회에는 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인물들과 우당위원장,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중앙경축행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총화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측화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판단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연회에 초대되었다.

연회는 애국가와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연 회 에 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래복동지의 연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힘있게 떨쳐지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격정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강성대국건설투쟁마당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들을 세차게 일으켜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당의 성스러운 65성상을 돌이켜보면서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열의를 다지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은 주체형의 새로운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건이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자기의 강력한 정치적합모부, 혁명의 전위부대를 가지고 당의 령도밑에 자주와 번영을 위한 새 사회건설의 길로 확신있게 전진해나갈게 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지난 65년간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거창한 혁명실연으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세계적인 기적과 전변을 이룩하였습니다. 철세위인들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높은 혁명성과 조직성,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주체의 기치높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로 위용 떨치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습니다. 우리 혁명의 류폐없이 준엄한 역사적행로에서 우리 당은 언제나 령도자와 인민을 하나로 이어주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이 극도로 악랄해진 엄혹한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한것은 우리 당의 위대성과 필승불패성의 뚜렷한 과시로 됩니다.

조선로동당의 선군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우주기술과 핵기술, CNC기술을 비롯한 첨단분야에서 당당히 앞서나가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으며 우리 식, 주체식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고조전군을 힘차게 벌여지는 속에 세상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변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꽃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켰으며 나라의 대외적관계를 더욱 높이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왔습니다. 력사의 온갖 난관과 시련을 파고파 뚫고 조국과 인민을 백성의 한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거대한 업적은 위대한 사상리론가, 회세의 정치리로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철세의 위인들을 진두에 높이 모시으로써 이룩될수 있는 고귀한 결실입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혁명의 승승장구와 김일성민족의 흥성번영을 안아온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자기들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성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있다.》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태양으로 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야 하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후손답게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과 의지로 강성대국의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은 선군의 위력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며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는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밝고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고있습니다. 당 창건 65돐을 경축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그리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과 여러 중앙경축행사대표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에서 뜻깊은 명절을 경축하고있는 해외동포측화단 성원들과 인사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 대경축야회 《번영하라 로동당시대》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5돐 대경축야회 《번영하라 로동당시대》가 10일 저녁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김일성평화와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일대의 대경축야회장은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온 세상에 빛내이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변영을 이룩해 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의 창건기념일을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한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광장에 모셔져있었다.

기발계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었다.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만세!》,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라는 구호들이 광장 주변 건물들에 나붙어있었다.

환영곡이 울리고 10월의 하늘가에 축포가 터져오르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원로 회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단관림석에 나오시었다.

순간, 군중들은 똑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조국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에하는 김정일동지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영남동지, 최영필동지,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춘동지, 전병호동지, 김극래동지, 김기남동지, 최래복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대경축야회 《번영하라 로동당시대》가 10일 저녁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광장에 모셔져있었다.

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 변영립동지, 리용무동지, 주상성동지, 홍석형동지,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장성태동지, 주규창동지, 김락희동지, 태중수동지, 김경태동지, 김정각동지, 박정순동지, 문경덕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오국렬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책임일꾼들이 주석단관림석에 나왔다.

또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주영강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동지,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서기 손정재동지, 우리 나라 주체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가 나왔다.

초대석에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 중앙경축행사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항일혁명

투사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

보도부문 일꾼들, 영웅들,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 혁명렬사유가족들, 공로자들, 근로자들이 나와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방문단원들과 반체제인족 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초대석에 자리를 잡고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온 중국공산당대표단과 주체사상 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주영강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동지,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서기 손정재동지, 우리 나라 주체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가 나왔다.

초대석에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 중앙경축행사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항일혁명

투사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

보도부문 일꾼들, 영웅들,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 혁명렬사유가족들, 공로자들, 근로자들이 나와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방문단원들과 반체제인족 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초대석에 자리를 잡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주영강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동지,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서기 손정재동지, 우리 나라 주체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가 나왔다.

초대석에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 중앙경축행사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항일혁명

투사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

예술인들과 근로청년들,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하는 대경축야회 《번영하라 로동당시대》가 시작되었다.

김일성평화와 주체사상탑, 대동강일대를 무대로 하는 대경축야회장은 우리 식 혁명색의 불보라와 천변만화하는 춤바다, 꽃바다 등을 펼쳤다.

서장 《어머니당에 영광을》 그리고 《김일성동지의 당》, 《수령님 녀린 꽃피는 강산》, 《당은 승리의 향도자》, 종장 《장군님따라 천만리》로 구성된 대경축야회는 세계정치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사상의 위력, 단결과 사랑의 힘으로 조국과 혁명을 향하여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통성변영의 시대를 안아온 조선로동당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대서사적 화폭으로 형성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등이 장중하게 울리고 경축의 축포들이 터져오르는 10월의 대축전장에는

에 드리는 영광과 축하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사회주의승리의 령사를 창조하며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에로 비약해나가는 천만군민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준 정치축전이다.

대경축야회가 끝나자 똑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고 10월의 광장은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 대경축야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며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고 당을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야 할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철심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꽃바구니들의 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광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 《경에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영원불멸하라!》 등의 글말들이 띄어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시대의 혁명적당건설로선을 제시하시여 우리 당을 가장 존엄높고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을 되새기며 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수도와 지방의 곳곳은 곳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들에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세계 싸워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당, 무력기관 일꾼들이 10일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숨연한 분무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향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통제

공무원에위병들이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통제공무원에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선율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영의로 된 꽃바구니

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땀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광할것이다》라는 글말이 띄어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은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불멸의 당

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참가자들은 어머니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모시고 경에하는 김정일장군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의 정이 나라에 차넘치는 가운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만수무답에 높이 모신 경에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체제인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을 되새기며 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수도와 지방의 곳곳은 곳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들에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세계 싸워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의 정이 나라에 차넘치는 가운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만수무답에 높이 모신 경에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체제인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을 되새기며 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수도와 지방의 곳곳은 곳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들에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세계 싸워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 진정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체제인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을 되새기며 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수도와 지방의 곳곳은 곳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들에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세계 싸워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의 정이 나라에 차넘치는 가운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만수무답에 높이 모신 경에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체제인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을 되새기며 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수도와 지방의 곳곳은 곳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들에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세계 싸워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의 정이 나라에 차넘치는 가운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만수무답에 높이 모신 경에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체제인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을 되새기며 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수도와 지방의 곳곳은 곳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들에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세계 싸워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의 정이 나라에 차넘치는 가운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만수무답에 높이 모신 경에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체제인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을 되새기며 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수도와 지방의 곳곳은 곳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들에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세계 싸워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 열병식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 열병식 성대히 진행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에 보내는 인민의 열광의 환호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참가자들 30여만 평양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수도의 거리들 통과

위대한 평등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한 대오가 10일 30여만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수도의 거리들을 통과하였다.

이날 혁명의 수도 평양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창건일을 뜻깊게 맞이한 찬란군민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에 긍지높이 들어선 승리자들의 크나큰 자부심으로 뒤편이 되었다.

명절일적으로 단장된 영광거리로부터 천리마거리, 영웅거리, 비파거리, 개선문거리, 대학거리에 이르는 수리리연도에는 위대한 당의 영도인 백두산혁명장군, 필승불패의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혁명무력의 위력과 자위적국방공업의 위용을 만천하에 파시한 열병식 참가자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손에손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들고 펼쳐나온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어린이들이 차고넘치었다.

연도에는 《위대한 평등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시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승리와 영광이 있으라!》, 《우리 당의 위대한 군인일치사상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세워졌었으며 주변건물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옹위하자!》,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를 비롯한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붉은기가 곳곳에 휘날리는 연도에는 또한 《불패의 당》, 《어머니당》, 《경축 65돐》, 《당을 따라 천만리》, 《일심단결》, 《선군혁명》, 《강성대국》, 《군사중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군민대동결》, 《조국통일》 등의 글발들이 띄어진 장식물과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를 선두에 모시고 열병식 참가자들을 대운 자동차종대들이 평양대극장앞도로에서 출발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율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며 환영의 꽃바다가 펼쳐졌다.

절세위인들의 기록한 영상을 거두리며 군중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적당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고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조선로동당을 영원한 수령의 당, 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적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여 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군중의 열렬한 환호는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특혜공군부대와 조선인민무군, 로동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혁명학원 열병대원들이 탄 자동차종대들을 향하여 울려 퍼졌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영광의 단상에 높이 모시고 승리의 보포를 드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환영연도를 누벼나가는 열병식참가자들.

미덥고 끝날한 그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는 락방구역안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우리 혁명무력을 당의 주체적군사사상과 전념으로 튼튼히 무장한 불패의 당군으로 키우시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군사적담보를 튼튼히 다지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에 어려와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장장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멸불후의 교고를 바치시며 독창적인 건군의 길을 개척하시고 일당백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어 우리 당과 혁명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약된 일당백용사들의 장엄한 호를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내고 또 보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거세게 울려 퍼지는 환영의 꽃물결, 꽃바다를 헤가리며 자동차종대들이 비파거리와 개선문거리를 지나 만수대연덕으로 힘차게 나아갔다.

연도에 걸걸이 늘어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사성구역, 대성구역안의 각계층 근로자들은 선군혁명도의 슬하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자라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동을 백두산총대로 깃부서 버리며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철옹성같이 수호해 가는 무적필승의 혁명적무장력을 가지고있는 자랑스러운 인민들의 모습이었다.

열병식참가자들은 《결사옹위》, 《총포탄》, 《일심단결》 등의 힘찬 구호로 군중들의 환영에 화답하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군사적으로 굳건히 담보하며 조국통일선전에서 한몸이 그대로 작렬하는 폭탄이 떨어지는 맹세로 심장의 피를 흘렸다.

수도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의 꽃물결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열을 받으며 군사강국의 위용,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파시한 기계화종대들이 대하마냥 노는 승거거리와 육류교, 대학거리에도 세차게 끓어올랐다.

《장하야 장군님의 전사들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국보위초소는 넘어마십시오》, 《전선에서 만납시다》...

시인들과 열병대원들이 서로 서로 인사를 받고 보내면서 감격에 웃음짓고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는 감동적인 광경. 그것은 한길호에서 어깨걸고 혁명의 수리부와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보위해갈 각오에 충만되어 있는 군민의 모습이 비친 송고한 환호의 모습이었다.

복합품으로부터 전승광장에 이르는 연도에서는 유지원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 전쟁로병들을 비롯한 군중이 혈육의 정으로 열병대오를 환영하였다.

오각별 빛나는 군포와 훈장과 메달이 번쩍이는 군복을 부러이 보아들며 군포를 너무나 좋아 두팔을 동동 구르며 손에 든 고무장갑과 꽃송이를 연신 흔드는 어린이들.

보물품속으로 수호자의 긍지와 보람을 더해주는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은 영원히 지울수 없는 추억으로 열병대원들의 가슴에 새겨졌다.

이제 자라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를 굳건히 지켜설 열망에 넘친 학생소년들이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조선인민군가》 등의 노래를 힘차게 연주하며 열병대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보내었다.

전화의 불빛속을 헤치며 승리의 7. 27을 안아온 전쟁로병들은 견승의 추포가 머저오르는 열병광장에 높이 모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장을 우리러 목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축하야회를 진행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단호하고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 자위적국방공업의 산아 미씨인 종대들의 장엄한 행렬을 바라보는 군중들은 자주적인민적의 대없는 존엄과 긍지로 가슴떨며 외쳤다.

외국의 멧들과 해외동포들도 경축광장에 나서는 조선인민군의 영웅적기상과 현대적인 무식철갑대오들의 모습에서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된 힘과 무진강인적 선군조선의 군사적잠재력을 보여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군중들은 총대의 위력으로 어머니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을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기세높이 나아가는 열병대오에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열병행진이 끝난후 경축광장을 꽃물결로 장식해 열었다.

경축의 꽃바다에 《김정일》, 《강성대국》, 《조국통일》 등의 글발들이 연이어 새겨지는 가운데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러 감격의 눈물로 머금고 환호를 울리는 찬란군민의 고결한 총성이 광장에 뜨겁게 끓어올랐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평등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띠시고 주석단로에 나오시어 영광직을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유령한 만세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10월의 하늘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평등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열병식참가자들의 장엄한 대하와 평양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위해 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참찬하신 조선로동당의 혁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군사적으로 굳건히 담보하며 조국통일선전에서 한몸이 그대로 작렬하는 폭탄이 떨어지는 맹세로 심장의 피를 흘렸다.

수도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의 꽃물결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열을 받으며 군사강국의 위용,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파시한 기계화종대들이 대하마냥 노는 승거거리와 육류교, 대학거리에도 세차게 끓어올랐다.

《장하야 장군님의 전사들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국보위초소는 넘어마십시오》, 《전선에서 만납시다》...

시인들과 열병대원들이 서로 서로 인사를 받고 보내면서 감격에 웃음짓고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는 감동적인 광경. 그것은 한길호에서 어깨걸고 혁명의 수리부와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보위해갈 각오에 충만되어 있는 군민의 모습이 비친 송고한 환호의 모습이었다.

복합품으로부터 전승광장에 이르는 연도에서는 유지원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 전쟁로병들을 비롯한 군중이 혈육의 정으로 열병대오를 환영하였다.

오각별 빛나는 군포와 훈장과 메달이 번쩍이는 군복을 부러이 보아들며 군포를 너무나 좋아 두팔을 동동 구르며 손에 든 고무장갑과 꽃송이를 연신 흔드는 어린이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있는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인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오가미 게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지승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3편에서 계속

그 뒤를 이어 4척의 어뢰정으로 적중순양함을 격침시키는 세계최초의 기적을 창조하고 미제잠수함선 《루에블로》호를 노획한 군위제 2여위정대와 서울해방과 금강도하, 대진해방전투에서 빛나는 무훈을 세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어머니수령님께서 평생 잊지 않으신 사단, 신념이 강한 부대라는 말썽을 받아안은 군위 서울제 3보병사단, 수령님께서 조직해주신 사단의 영예를 안고 전쟁전선군위 무적의 부대로 자랑말린 군위 서울김책제 4보병사단의 튼튼하고 끝날한 군위병들이 나타났다.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조국보위전에 한몸바친 영웅전사들의 넋을 이어받았는가 백승의 전통을 계승하는 무적대오의 위용을 시위하는가 위훈짓는 용기들을 앞세우고 만세소리 우렁차게 터뜨리며 힘차게 행진해가는 군위병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총대의 위력으로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승리를 떨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한 우리의 혁명무력.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의지를 새기고 당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강성대국을 위하여는 혁명무력이 있어 우리 인민은 남들



[조선중앙통신]

축포야회

함흥시와 개성시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축하야회가 10일 저녁 함흥시와 개성시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동해의 경동도시와 분계연선시구의 역사문화도시를 위대한 평등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긍지높이 당창건 기념일을 불꽃축전으로 경축하게 되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축포야회장들이 함흥시 동경대혁명관과 개성시 풍수산일대를 비롯한 곳곳에서는 축하야회를 판막하기 위하여 모인 군중으로 차넘치었다.

함흥남도, 황해북도과 개성시의 당, 무력, 인민군인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오들을 향해 군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강철보신을 누그러뜨린 당종대들이 자위로 굳건한 불패의 군사강국의 기상인고 힘차게 나아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리러 마음속으로 《당부대 전선부비 팔!》이라고 고고물드리는 열병행렬의 대오를 두른 군복들을 입고 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행진대를 바라보며 군중들은 혁명학원어린이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찬성하였던 선렬들의 넋과 정신을 이어가리라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정면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승리과 영광을 떨치는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년대기에 새겨진 고귀한 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혁명이자 총대의 총대이며 사회주의조국도 나라와

민족의 용서없는 백두산총대사상, 총대철학이다.

이력사의 전리를 새겨안으며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종대들이 학살단을 향해 뜨거운 절례를 표시하며 평장을 누벼나갔다.

어머니당의 65년사를 경축하는 광장에 붉은 피를 두른 군복들을 입고 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행진대를 바라보며 군중들은 혁명학원어린이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찬성하였던 선렬들의 넋과 정신을 이어가리라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정면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승리과 영광을 떨치는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년대기에 새겨진 고귀한 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혁명이자 총대의 총대이며 사회주의조국도 나라와

민족의 용서없는 백두산총대사상, 총대철학이다.

이력사의 전리를 새겨안으며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종대들이 학살단을 향해 뜨거운 절례를 표시하며 평장을 누벼나갔다.

어머니당의 65년사를 경축하는 광장에 붉은 피를 두른 군복들을 입고 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행진대를 바라보며 군중들은 혁명학원어린이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찬성하였던 선렬들의 넋과 정신을 이어가리라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정면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승리과 영광을 떨치는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년대기에 새겨진 고귀한 전리는 무엇인가.

[조선중앙통신]

서사시

당 은 어 머 니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1

10월이 왔다
우리 인민의 크나큰 명절
어머니 우리 당에
천만자식 축하의 인사 삼가 드리는
환희로운 10월이 왔다

장장 65성장
민족번영의 전성기
강성번영의 새 시대를
력사의 한복판으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10월

굳이치는 격정의 바다
일렁이는 환희의 물결
아, 해마다 찾아오는 10월이건만
이해의 10월은
류달리도 경사로와라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의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받들어모시고 맞는
영광의 10월

선군혁명의 앞길
더 밝게 열어놓으며
천만군민의 폭풍같은 환호성에
받들린
행운의 10월

금지로 부르는 가슴
환희로 설레는 마음으로
인민을 한품에 안고 걸어온
우리 당의 모습 우리러니
더더욱 그윽이되는 우리 수령님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생각

어려오누나
백두에서 안고온 붉은 기록에
인민의 모습
우리 당의 뜻을 이루었나니
하나하나 새겨넣으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이

혁명의 먼길에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력사의 모진 풍파를 다 헤치신
이민위원의 그 한평생이
성스러운 우리 당력사를 이루었나니

우리 당의 력사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
혁명과 건설의 력사를 위해
기쁨도 괴로움도 인민때문에
오로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

65성장 어머니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 기울인
사랑의 그 이야기 어이 다 헤아리랴
지나온 세월은 이기에 멀어도
인민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기에 펼쳐나니

그날은 당창건을 신로한
그 환희 그 기쁨을 안고
은 나라가 잠잠하던 10월의 밤
달빛도 유정한 해방산길 트랙을
수령님은 말없이 거니시었어라

창립대회장을 진감하던 박수소리
만세소리
저 하늘가에
매아리로 머물러있는듯
정원의 나무앞새들도
그 감격에 젖어 설레이는듯

혁명가의 새 삶을 받아안은 가슴
들이
당원증을 안고 잠 못들던 격정의
그 밤
수령님사색의 세계를 흔들세라
조용히 따라서는 투사들의 마음도
얼마나 기뻐오랴

이제는 우리 수령님
인민들과 조국개선의 인사도
나누시리
사립문 활짝 열어놓고
조부모님 기다리고계시는
고향집트락에도 들어서시리

히나 그 누가 알았던가
당의 창건자 우리 수령님만은
하나의 무거운 생각속에
이 트랙을 거니시는줄

—머지 않아 김정철이 오겠는데
해방된 오늘까지 인민들이
소금때문에 불편을 겪게 할수
없소
만사를 미루고 이 문제부터 푹시다

그 밤
희의가 열렸다
이직은 서리도 내리지 않은 때
이직은 그 어느 집 주부도
생각해보지 못한 긴장용소금문제를
두고

이제
먼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 당
새 나라를 세우는 길에
력사의 폭풍을 헤쳐가야 할 그 길에
중대사는 얼마나 많았으랴

하건만 인민의 소금문제를 두고
그 밤 잠 못들 줄 누가 알았더냐

그렇게 지새우고 맞이한 아침이
우리 수령님
조국개신연단에 오르신 그 아침인줄
아는이 몇몇이더냐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없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헤아려주고
열에서 백까지 다 풀어주는
그 어머니가 우리 당이었다

이렇게 수령님은 인민의 심장속에
당의 첫 모습을 새겨주셨어라
이렇게 우리 당은 인민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리잡았어라

백두에서 지고는 풀빛배낭을
설음잡던 인민들속에 풀어놓고
혈전의 생눈길에 찍어온 빨치산의
발자국을
인민을 위한
복무의 천만리길에 이어놓은 우리 당

인민에게 걱정이 있을세라
그들의 살림살이를 먼저 걱정하고
인민이 가야 할 길을
먼저 다 걸어보며
인민이 해야 할 일들을
알당겨 다 생각하는 당

인민의 소원
인민의 숙망을
인민의 당과 정책으로 세워
당의 사상 당의 슬결을
인민과 하나로 이어놓으신
우리 수령님

하기에 인민은
신문과 방송에서보다
눈내리는 공장길 이슬젖은 포전에서
수령님 하시는 말씀들 먼저 들었나
인민과 무릎을 마주하고 하시던
그 말씀을
당의 목소리로 들으며 살았나니

김일성동지
그이는 우리 당이었다
인민이 력사의 주인이라는
그이의 사상이 당의 지도사상이
되고
그이의 품에서 받아안은 주체의
붉은 피는
우리 당의 혈통이 되었다

그이의 불라는 사색속에
우리 당은 자기의 웅대한 설계도를
그었고
그이 옮기시는 거룩한 한결은
한결음에
우리 당은 위대한 전진의
큰 자욱들을 내질었거니

이렇게 당은 우리에게 왔다
수령님의 한평생에 실리어
이렇게 당은 인민과 함께 있다
영원히 수령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민모두
뜨거운 심장으로 노래를 부른다
김정일장군님 모시며
수령님존함으로 빛나는 강성대국
10월의 경축광장에서 부르는
인민의 노래소리 하늘땅을 울린다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김일성원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목숨도 바쳐가리 오직 한마음

2

태어나 첫날부터
어머니가 되어야 했던 당
예순다섯해 긴긴세월
어머니 그 한모습 변함없이
인민을 보살피준 당이어

풀안아 키워주며 고생잡던
어머니 나이를 세어보듯
당이어 어머니시여
그대 우리를 위해 사랑과 정을
기울어온
65성상의 해와 달 더듬어보나니

천만자식 품에 안고 걸어온 그 길은
너무도 멀고 험했구나
인민의 운명을 지켜
전화의 불비도 헤쳐야 했고
중중첩첩 시련의 준펄들도 넘어야
했던
어머니 우리 당

분여지의 표밭에서
송진내도 가시기 전에
갓 창건된 풍화국을 이끌고
당은 가련한 전쟁도 치뤄야 했다
제머미만 남은 빈터우에서
인민의 보금자리를 다시 세워야
했다

준엄하고 잔고했던 그 세월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언제한번 그 고풍에서
인민을 내려놓은적 없는 우리 당
중대사는 얼마나 많았으랴

당을 따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면
전쟁의 포화속도 웃으며 헤칠수
있었고

제머미속에서도 웃으며 일어설수
있었던만
정녕 이겨낼수 없는 슬픔
정녕 일어설수 없는 시련이 있었
으니

너무도 뜻밖에
당의 창건자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우리 당의 기발이 피눈물에 젖던
그날
장군님 마음속엔
더더욱 사무치는 하나의 생각

1994년 7월 7일
장군님 밤길도록 보아주시고
그리도 만족하시어
날이 밝으면
수령님께 어서 보여드리자고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하시던
당창건기념탑형성시안

오, 정녕 보여드릴수 없던 말인가
수령님 한평생 사랑하시며
당기발에 새겨넣으신 인민의 모습
억년 대물위에 찾아 빛나게 될
이 세상 하나뿐인 당창건기념탑을

아니다
수령님은 보시게 될것이다
수령님의 이민위원의 사상이 받들어
올린
우리 당의 탑
한평생 그리도 사랑하시던 인민의
모습 새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기념탑을

탑을 세우리라
만수대연덕에 서계시는 우리 수령님
한눈에 보실수 있는
평양의 한복판에
인민의 마음속 한가운데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이라는
그 절대불변의 신념이
한글기 또 한글기 당의 탑으로
찾아올랐구나

당창건기념탑이 완공된 그날
곧추 노을비긴 만수대연덕
수령님동상을 바라보시며
우리 장군님 하시던 절절한 말씀
이어

—만수대에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이
김일성동지 만세를 상징한다면
여기 당창건기념탑은
조선로동당 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 당의 기본구조가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뜻이
깊을지나

오, 그이는 이렇게
력사의 한복판에
인민의 마음속에 높이 세우시었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수령님과 함께
걸어갈
조선로동당의 불굴의 의지를
수령님품에 영원히 안겨갈 인민의
모습을

그 가슴아픈 나날에도
인민을 더 꼭 껴안아준 우리 아버지
시련이 겹쌓일수록
어머니의 뜨거운 정 부여준
세상에 더 빛나게 내세워준
우리 장군님

모진 고난속에서 더더욱 불타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안고 헤친
철명의 굵이굵이
가계의 눈보라길이어

지금도 들려오누나
아아한 땅립산발
희천발전소의 터전을 잡아주시리
길아닌 길을 열어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발걸음소리

진눈까비 내려 질척이는 산길
인적도 없는 원시림
머는 길이 없다고
절절히 아뢰며 막아서는 일꾼들
에게
그이 하시던 그 말씀

—누구도 가본적 없는 곳이라는데
인민을 위해서라면 가야 합니다
남이 아직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앞장서서 헤쳐는것이
나의 습관이며 생활방식입니다

오, 초행길 초행길
인민을 안고
수령님 한평생 헤치시었고
장군님 오늘도 열어가시는
인민사랑의 초행길

앞장에서 초행길을 열어가시는
장군님의 그 자욱을 따라
위대한 영웅시대가 이 땅우에
태어났고
불패의 강국이 거연히 솟아올랐
거니

이렇게 우리 당은
인민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왔어라

장군님 걸으신 강행군길에
인민의 천만복이 꽃으로 피어났
어라
이렇게 인민은 당이 열어온
강성대국건설의 넓은 길우에 올라
섰어라

환희속에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따스한 손길에 받들려있구나
벽차게 안아보는 오늘의 모든
전반속에
그 사랑은 흐르고있구나

이 나라 너인들이 목매여 쓰다
듣는
그 포근한 비날문숨에도
뜨거운 그 정 갈피갈피 스며있고
아득히 뻗어간 대제도의 제방에도
헌신의 그 자욱자욱이
만년장적으로 교역져있나니

당이어
그대는 있더라
청춘과원에 펼쳐진 사과꽃바다
행복의 열매 무르익히는 그 뿌리로
무강조국의 밝은 패일을 눈앞에
그려주며
이 강산에 울리는 CNC의 노래
그 아름다운 신물속에

천리전신을 한눈에 굽어보는
그대의 눈빛은 다 살펴보더라
수도에 새로 솟은 뿔뿔이거러들
그 집집의 작은 문손잡이로부러
농촌마을 새 문화주택
트랙의 과일나무 한그루 한그루
까지...

사람들은 모르리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들궂던 수도의 거리
10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인민은
어머니당에 드릴
축원의 꽃다발을 엮고있을 때

전선길을 달리는 야전차의 차창
가에선
또 하나의 전설이 태어났거니
우리 가슴 고평의 눈물로 적셔
주는
열세세대살림집이야기

인민에게 안겨줄 크나큰 선물
웅장하고 화려한 연극극장이
수도 한복판에
한층 또 한층 자기의 응자를 드러
낼 때
그 모습 보며 모두가 기뻐할 때

어이 알았오랴
그 극장의 처마 한끝에
인민의 집이 가리워지기를 두고
그로록 마음스신
우리 장군님의 그 심증을

그이는
화려한 극장의 높은 추녀를 보기
전에
먼저 세어보시었다
이제 옮겨앉아야 할
몇집 인되는 인민의 살림집세대
수물

극장의 완공기일도 중요하지만
인민이 불편을 겪게 될
그 길지 않은 날수를 더 크게
생각하신
우리 장군님

허나
그날의 갈림길에서
장군님 택하신것은 전선길이었다
아프신 심정 애써 누르시며
눈보라 올부짓는 전선길로
결연히 발걸음 옮기신 장군님

—가자, 이 길로
선군의 이 길만이
조국을 지키는 길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 길이다!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 길이다!

먹어주고 입혀주고 내세워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 했던만
그 사랑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열렬한 사랑은
한몸 내대여
천만자식의 삶과 운명을 지켜준
사랑

자주적인위병으로 사느냐
노예가 되느냐
력사의 갈림길에서
장군님 선택하신 그 길은
갈매를 모르는 오직 한길
인민을 위한 곧바른 한길

그 길에
우리 수령님 한평생이 어린
선군의 붉은기 우리의 붉은기가
더욱 새차게 휘날렸다
강성대국으로 잇닿은
우리 당의 행군로가 있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한때 붉은기를 띄우고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

오, 그것은
장군님을 우리러
우리 당을 우리러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웨칭
이 세상 끝까지
하늘땅 끝까지 울려가는
조선로동당 만세의 환호성!

10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격정의 환호성을 들으며
내 웨칭노라
사랑과 정, 믿음으로 하나가 된
당과 인민!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회주의 크나큰 집 한추녀아래
대가정을 이룬 행복한 인민이어
당은 인민을 하늘로 받들고
인민은 당을 어머니로 받드는
일심단결의 위대한 모습이어!

어머니에게서 자식을 떼어낼수
없듯이
하늘땅이 무너진대도
흔연일체를 이룬
우리 당과 인민을 가를 힘은
세상에 없어라!

오, 수령님품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안은 당
장군님품에서
변함없는 어머니의 걸음새를 익혀
온 당
그 품에 삶의 슬결을 잇고 자란
인민과 함께 우리 당 조선로동당은
영원하리라!

3

당이어
천만자식의 운명을 지켜
행복과 미래를 지켜
선군의 총을 높이 든 어머니시여

승엄한 그대 모습
우리러 우리러불수록
그대처럼 자애롭고
그대처럼 강하고 역센
그런 어머니를 우린 모르노라

사랑으로 불라는 어머니가 아니
라련
그 누가 그리도 험한 철령을
낮에도 넘고 밤에도 넘으랴
풍랑이는 날바다도 헤치고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는 최전방에
사생결단의 자욱 새길수 있으랴

천리먼 천리
당이면 만리
전선길에 새기신 그 자욱
따라서는 이 마음에 어려오누나
장군님 서계시던 그날의 갈림길이

흰눈은 내리고 내려
그이의 어깨우에 하얗없이 쌓이
는데
불꺼진 공장과 마을들을
말없이 바라보시며
천근인가 만근인가
무거우신 마음으로 서계시는 장군님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어버이를 더 찾는 자식들처럼
장군님을 기다리는 인민들
한달음에 달려가
품에 안아주고싶으신 불같은
마음

허나
그날의 갈림길에서
장군님 택하신것은 전선길이었다
아프신 심정 애써 누르시며
눈보라 올부짓는 전선길로
결연히 발걸음 옮기신 장군님

—가자, 이 길로
선군의 이 길만이
조국을 지키는 길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 길이다!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 길이다!

먹어주고 입혀주고 내세워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 했던만
그 사랑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열렬한 사랑은
한몸 내대여
천만자식의 삶과 운명을 지켜준
사랑

자주적인위병으로 사느냐
노예가 되느냐
력사의 갈림길에서
장군님 선택하신 그 길은
갈매를 모르는 오직 한길
인민을 위한 곧바른 한길

그 길에
우리 수령님 한평생이 어린
선군의 붉은기 우리의 붉은기가
더욱 새차게 휘날렸다
강성대국으로 잇닿은
우리 당의 행군로가 있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한때 붉은기를 띄우고

혁명의 향로에 올랐다가
력사의 소용돌이속에
인민을 쫓버린 그런 당들울

몰아치는 천지풍파속에서도
우리 수령님
붉은 기록에 혁명의 주체로 세워
주신
인민을 더욱 억세게 안고
자욱자욱 선군의 길을 따라
백전백승을 떨쳐온 당이어

얼마나 행복한가
선군의 당이 있다는것은
우리에게
조선로동당이 있다는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삶중에 가장 빛나는 삶이 있다
는것
희망중에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
있다는것
미래중에 가장 밝고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것

그것은 우리 아이들
아침마다 노래부르며 들어서는
해빛밝은 학교가 있고
그것은 내 나라 도시와 거리
산간벽촌 마지막마을까지
어디나 행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것

선군의 당이 있어
세상 저쪽에선 약육강식이 범람
해도
우리예전 서로 돕고 이끌며 사는
행복의 집이 있고
일터가 있고
나아가 있어라

선군의 위대한 당이 있어
불의가 정의의 빛나는 계곡주의를
호령하며
세계를 굽어보는 우리의 위성이
날아라
그 누구도 다시는 건드릴수 없는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배짱으로
핵억제력의 거대한 힘 우주를 진동
하여라

위대한 당이 있어
령토는 크지 않아도
나라는 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승리의 배심리로 세계를 향해
우리는 당당히 나아가거니

오, 선군혁명의 위대한 타수가
조라를 억세게 잡아
그 어떤 난파에도 항로를 잃지
않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포부로 미래가 양양한 당

오, 선군혁명의 위대한 타수가
조라를 억세게 잡아
그 어떤 난파에도 항로를 잃지
않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포부로 미래가 양양한 당

오, 선군혁명의 위대한 타수가
조라를 억세게 잡아
그 어떤 난파에도 항로를 잃지
않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포부로 미래가 양양한 당

오, 선군혁명의 위대한 타수가
조라를 억세게 잡아
그 어떤 난파에도 항로를 잃지
않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포부로 미래가 양양한 당

오, 선군혁명의 위대한 타수가
조라를 억세게 잡아
그 어떤 난파에도 항로를 잃지
않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포부로 미래가 양양한 당

오, 선군혁명의 위대한 타수가
조라를 억세게 잡아
그 어떤 난파에도 항로를 잃지
않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포부로 미래가 양양한 당

오, 선군혁명의 위대한 타수가
조라를 억세게 잡아
그 어떤 난파에도 항로를 잃지
않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포부로 미래가 양양한 당

오, 선군혁명의 위대한 타수가
조라를 억세게 잡아
그 어떤 난파에도 항로를 잃지
않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포부로 미래가 양양한 당

오, 선군혁명의 위대한 타수가
조라를 억세게 잡아
그 어떤 난파에도 항로를 잃지
않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포부로 미래가 양양한 당

오, 선군혁명의 위대한 타수가
조라를 억세게 잡아
그 어떤 난파에도 항로를 잃지
않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포부로 미래가 양양한 당

오, 선군혁명의 위대한 타수가
조라를 억세게 잡아
그 어떤 난파에도 항로를 잃지
않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포부로 미래가 양양한 당

오, 선군혁명의 위대한 타수가
조라를 억세게 잡아
그 어떤 난파에도 항로를 잃지
않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포부로 미래가 양양한 당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받들어올리거니

우리 당은 만족을 모른다
오늘보다 더 아름다와야 할
인민의 패일을 두고
그래서 언제나 모든것을 보란듯이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당이어, 우리 어이
진한 맘을 바치지 않으랴
심장의 피인들 아끼랴
그대의 시대와 함께 불리울
이 땅의 그 모든 창조물들과 기념
비들에

그대가 바라고 설계하고 구상하는
것이
얼마나 웅대한것인가를
우리 아직 다는 헤아릴수 없노라
히나, 우리는 아노라 그 모든것이
인민을 위한것임을
그 구상을 받드는것이
우리의 행복과 번영의 걸림울

그때문에
날바다를 가르며 뻗어간 만년제방
우에서
그대가 또다시 손들어 가리키는
수령선 저 멀리로
신들메를 조이며
우리 웃으며 떠나가노라

그대의 뜻이라면
천길지마작정에
우리는 거기에 삶의 위치를 정
하고
그대의 리상이라면
한몸이 최첨단들과의 불결이 되어
세번째, 네번째 위성을
만리우주에 띄워올리리라

무엇이 두려우랴
이 세상 그 무엇이 가로막으랴
당과 인민이 하나되어 나아가며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워가는
이 노도와 같은 철의 진군을
우리 당의 찬란한 미래를 밝히는
향도의 빛발이 비치여온다
조국을 이끌고 혁명을 이끌어갈
우리 당의 찬란한 앞길에

오, 조선로동당!
천만민을 한품에 안고
영원히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어갈
역척불변의 그 신념과 의지가
창공높이 빛나는 뜻깊은 10월

마치와 낮과 붓을 틀어쥐고
총대를 억세게 비껴든
수천수만의 손과 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또다시 우리 당 총비서로 받들어
올렸거니

예순다섯해전
우리 수령님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 그날
처럼
우리 장군님을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추대하고
민족사의 최전성기를 열어가는 당

력사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력사
세월중에서 가장 위대한 세월을
반만민민족사에 아로새기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은 세계에 떨쳐온
조선로동당, 불패의 당이어

백년천년이 흐른다 해도
천대만대가 바뀐다 해도
이 땅우에 쌓아올린 불멸의 그
업적
이 땅우에 펼쳐갈 불멸의 그 위업
으로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인민의 하늘같은 신뢰와 믿음속에
찬란한 행복의 빛을 뿌리며 미래
에로 가리라

감사를 드리노라
65성장 하루와 같이
천만자식을 품에 안고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어머니
고마운 우리 당이어

영광을 드리노라
김일성민족의 가슴에
우리 당을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승리로 빛나는 당의 력사를
수령님의 영생에 이어놓으신
우리 당의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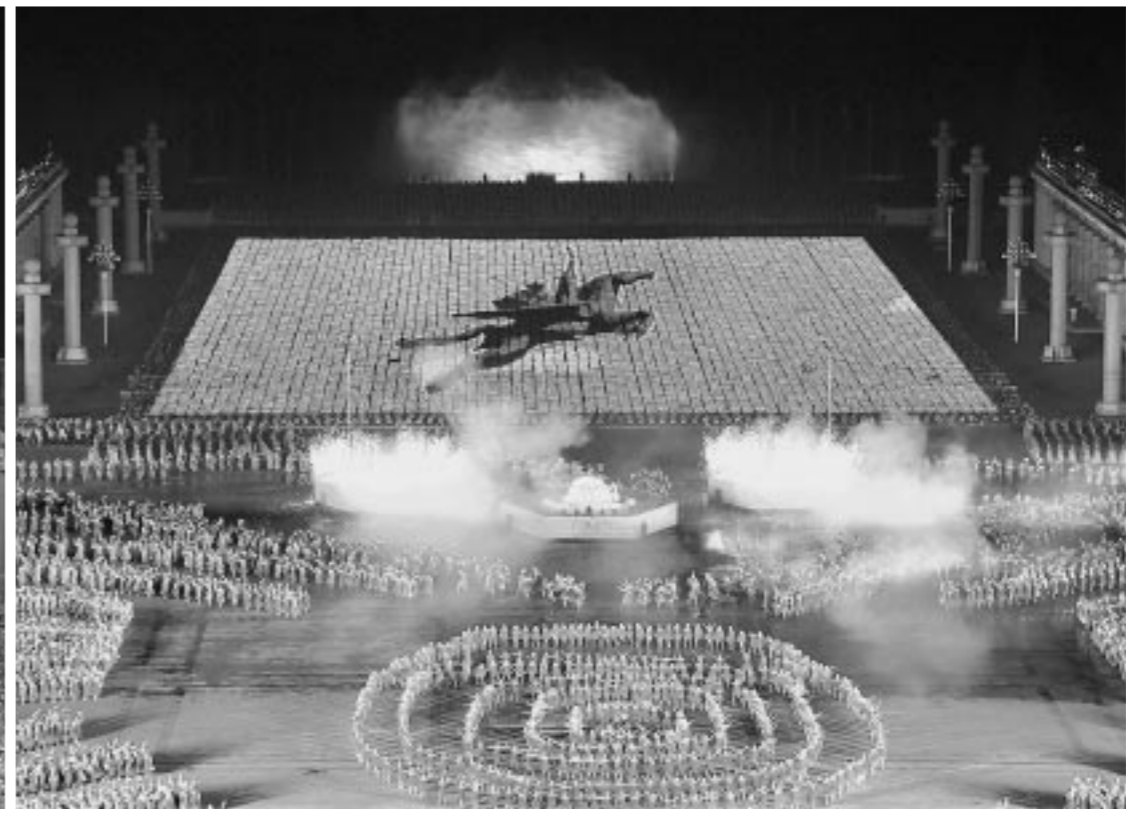
이 세상 끝까지 따르고 받들리라
어머니 우리 당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이며 창조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무궁토록 따르고 받들리라
아,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이어!

영광을 드리노라
김일성민족의 가슴에
우리 당을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승리로 빛나는 당의 력사를
수령님의 영생에 이어놓으신
우리 당의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이 세상 끝까지 따르고 받들리라
어머니 우리 당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이며 창조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무궁토록 따르고 받들리라
아,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이어!

조선로동당창건 65돐 대경축야회 《번영하라 로동당시대》 진행



중국 공산당 대표단 만경대 방문,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참관



【평양 10월 10일 발 조선중앙통신】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주영강동지들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대표단이 10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

시며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이력사의 집에 깃들여있는 불멸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주영강동지는 만경대고향집을 돌아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시고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모든것을 바치시었다.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우리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꾸려진 궁전의 여러 소조실을 돌아보면서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궁전에예술조원들이 대표단을 위하여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모택동주석, 주은메총리와 깊은 우정을 맺으셨었다.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신 중조친선판게는 피로써 맺어진 관계이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호급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과 김일성동지를 총비서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진통적인 중조친선판게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총비서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고 계신다. 이날 대표단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우리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꾸려진 궁전의 여러 소조실을 돌아보면서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궁전에예술조원들이 대표단을 위하여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였다.

6 면에서 계속 그들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주체공업의 위력을 떨치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함흥과 개성의 밤하늘에 장쾌하게 터져오를 축포는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로 된다고 말하였다. 축포야회를 인민의 사상적저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조형예술적으로 독특하게 개발된 우리 식의 현대적인 축포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천갈매만갈매로 황혼을 펼칠 축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높은 명마루에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과 불타는 맹세의 불보라, 장엄한 희생으로 펼쳐지리라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따라 나아가는 신군조선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65성상의 투쟁행로가 강조하였다.

축 포 야 회

함흥시와 개성시에서 진행

축포야회의 시작이 선언되자 《당의 기치따라》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속에 창공으로 축포가 편이 터져 오르며 10월명절의 밤하늘에 회한한 불꽃장판을 펼쳐었다.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신 절세위인들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을 형상한 듯 각양각색의 불보라가 천변만화의 조화를 부리며 쏟아져 내리고 신군조선의 혁명적대사변을 알리는 최성인양 축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로동당은 우리의 향도자》, 《당을 노래하노라》를 비롯한 당에 대한 찬가에 맞추어 편이 펼쳐지는 불보라에는 광경은 개성시민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우리 식 축포의 위력과 조형예술화수준을 보여주는 불꽃보라가 변화무쌍하고 신비로운 화폭을 연속 펼쳐지 군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며

《비날론삼천리》의 노래속에 끝없이 흐르는 눈부신 불꽃기를 바라보는 함흥시의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의 천지개벽을 안아오시고 현대적인 비날론공정공을 경축하는 군중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비날론로동계급을 축하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고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인민들에게 천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담아 《그이의 리상》, 《우리는 천리마라고 달린다》, 《전선에서 만나자》 등의 노래들에 맞추어 총천하는 화폭속에 형형색색의 불갈기들이 날리는 광경은 개성시민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우리 식 축포의 위력과 조형예술화수준을 보여주는 불꽃보라가 변화무쌍하고 신비로운 화폭을 연속 펼쳐지 군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며

열광의 환호를 울리었다. 군중들은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우리 당의 지랑스러운 대고조력사를 빛내여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축포야회를 마감하면서 연설자들은 10월의 밤하늘에 받들어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의 천지개벽을 안아오시고 현대적인 비날론공정공을 경축하는 군중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비날론로동계급을 축하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고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인민들에게 천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담아 《그이의 리상》, 《우리는 천리마라고 달린다》, 《전선에서 만나자》 등의 노래들에 맞추어 총천하는 화폭속에 형형색색의 불갈기들이 날리는 광경은 개성시민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우리 식 축포의 위력과 조형예술화수준을 보여주는 불꽃보라가 변화무쌍하고 신비로운 화폭을 연속 펼쳐지 군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며

【조선중앙통신】